

차고지증명 주차장 임대료 감액 형평성 논란

도, 차고지증명 차량 주차비 경감 취지 올해부터 시행 기존 대비 50% 감액... 1년 정기주차권 동지역 90만원 일반 차량 운전자들 “동지역 정기주차 월 10만원 내야”

차고지증명용 유료 공영 주차장 임대료 50% 감액을 두고 일각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 차량이 유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과 비교해 약 3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다.

제주시 동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한 도민은 단속을 피해 주차할 곳을 찾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차 단속이 강화되는 구간이어서 자칫 차를 잘못 세웠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 지역에서는 유료 공영 주차장 정기 주차 시 월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도민은 “올해부터 차고지증명 차량은 이전보다 50% 감액된 45만원으로 1년간 공영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소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고지증명 차량은 한 달에 3만원 조금 넘게 내면 1년 내내 자유자재로 공영 주차장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1년에 100만원 이상

부담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도 좋지 않지만 기존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차고지증명 임대료 감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이래 점차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며 개정된 조례를 보면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연간 차고지증명용 임대료가 종전 동 지역 90만원, 읍면 66만원에서 올 1월부

터는 할인 폭이 더 늘어나 동 지역 45만원, 읍면 33만원으로 내렸다. 지난해 11월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를 보면 공영 주차장의 차고지증명 주차 차량은 제주시 537대, 서귀포시 89대였다. 2024년 11월 말 기준 차고지증명용은 전체 대상 차량 37만1161대의 37%인 13만7401대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8일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이 추진될 때 도에서는 차고지증명 차량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간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재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개정 건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선화기자

“청년이어드림 대상 2500명까지 확대” 도, 2025년 제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

제주도가 올해 맞춤형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대상을 2500명까지 확대하고, ‘런케이션’과 RISE 사업을 연계하는 등 청년정책 효능감 제고에 나선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정안과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도정 핵심 추진사항인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등을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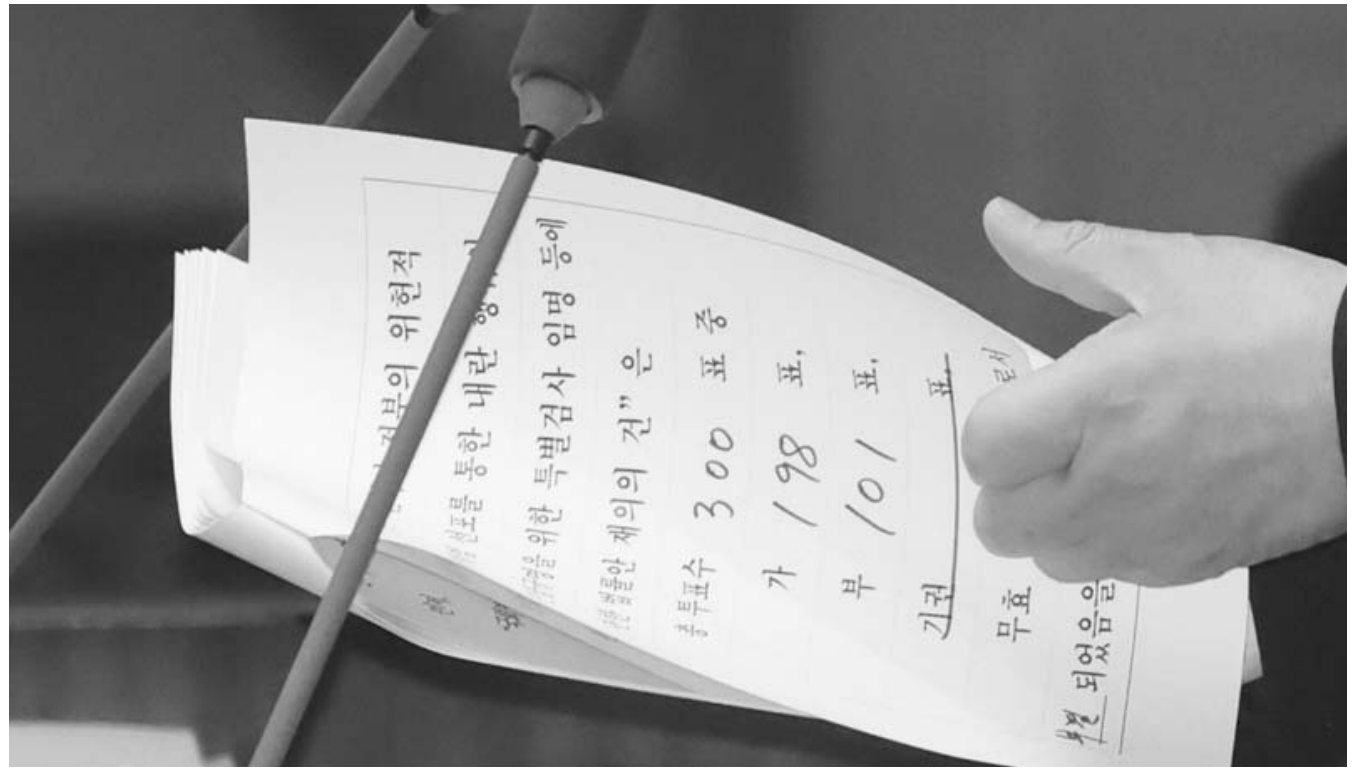
도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하는 한편,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수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5대 분야 99개 사업에 1509억 원을 투자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분야별 맞춤형 정책연계 대상 확대와 청년정책의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조성 등 15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에는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공유물품 대여사업, 1회용품 보증금제 청년 소도리단 운영 등 청년 참여기구인 제주청년원탁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강다혜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별법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민주당 “특검법 신속 재추진... 헌정질서 지켜낼 것”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이날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또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분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내에 양심파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내란·김여사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성공할까 법원, 2차 영장 발부... 공수처 “마지막이란 각오” 윤 대통령 측 “기소나 구속영장 발부 시 응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가운데,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던 1차 집행 때와 달리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측은 기소나 구속영장 발부 시 진행되는 법원 절차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7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의 인력을 지원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재청구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례회의에 참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법원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체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의 희생을 막겠다면 왜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막았냐”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졸렬한 여론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9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 1월 12일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항거, 민족 자존성을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난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2025년 1월 12일(일)
- 장소 : 해녀항일기념탑, 동녕도서관 대강당
- 행사내용 : 해녀항일 추모제 및 기념식
 - ▶ 추모제 : 해녀박물관 해녀항일기념탑 09:00
 - ▶ 기념식 : 동녕도서관 대강당 11:00

■ 연락처

- 사무처장 고성오 ☎ 010-9779-1802
- 위원장 김태민 ☎ 010-6798-5809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위원장 김 태 민 및 회원일동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